

성인여성의 연령에 따른 유방형태 인식에 관한 연구

김 영 숙

서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Perceived Breast Shapes of Adult Women according to the Age

Young-Sook Kim

Dept. of Fashion Design, Seonam University.

(2003. 1. 1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or the basic data useful to the development of a quality brassiere featuring a good wearing feeling and an effect of reinstating and correcting breast shape. For this purpose, 220 adult women aged between 20 and 59 were sampled to survey their perceived and actual breast shap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ost adult women correctly perceive the changes of their breast shapes as they become older. However, the younger women tend to evaluate their breast as larger than their actual sizes, being more dissatisfied with their breast shapes than older women, while wanting their constitution to be more high and slim. In short,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ir perceived and actual breast shapes.

2. The breast shape perceived most by the adult women is "droopy type I"(37.7%), followed by "conical type"(21.8%), "flat type"(16.8%), "semi-circular"(10.8%), "droopy type II"(8.6%) and "extruded type"(5.0%) in their order. The younger women tend to perceive their breasts as "flat", "conical" or "semi-circular", while the older women tend to perceive their breasts as "droopy".

3.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age, the items of height were decreased and items of width, depth, circumference and length were increased, being obser and breast point were drooped, so volume and bottom area of breast of 40·50's women's age group were larger than 20?30's women's age group and breast point width of 40·50's women was being wider by increase of interior dimensions of breast.

Key words: Breast shapes(유방형태), Droopy type(하수형), Conical type(원추형), Flat type(납작형), Semi-circular type(반구형), Extruded type(돌출형)

I. 서론

사람의 체형은 성별, 민족, 거주지역, 생활상태, 영양상태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그 중 연령은 신체형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¹⁾ 연령층마다 골격, 근육, 특히 피하지방층의 두께와 침착위치의 변화로 인해 달라지게 되어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성인여성에게 있어 모성과 성적매력을 나타내는 유방부위는 연령과 환경에 따라 현저하게 변화하고 그 형태도 다양하며, 유두주변을 제외하고는 무근육으로써 근본적으로 피부에 의해서 지지되고 원추체와 유사한 곡면을 형성하고 있어 의복 착용시 흉부의 실루엣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편, 신체에 대한 인식은 극히 개인적인 인식으로 실제연구에서 자신의 정확한 신체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소수라고 밝혀지고 있으며²⁾ 신체만족도는 실제 신체치수보다 신체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더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³⁾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상에 만족하지 않고 바꾸어지기를 원하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스포츠, 미용기구, 다이어트 등보다는 간단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복으로 체형을 커버하는데 관심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심리학적 입장에서 행하여진 연구로, 신체의 종합적인 만족도를 취급하거나 비만과 수척의 개념으로 전신체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부분체형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실제체형에 대한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유방형태와 관련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

면 유방의 성장단계인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유방유형에 관한 연구⁴⁾와 20대와 40대 성인여성⁶⁾⁷⁾과 60대 이상의 노년여성⁸⁾의 유방형태를 분석하고 치수규격을 설정한 연구가 있으며 그밖에 브래지어의 역사, 착용실태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20대를 위주로 한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어 있거나 각기 지역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어 연령별 인지적·실제적 유방유형에 관한 통합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유방부위에 대한 인식도 및 실제체형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여성의 인지적·실제적 유방유형을 파악하여 소비자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아름다운 신체상을 만들기 위한 기능성, 쾌적한 착용감, 그리고 엘레강스 지향의 디자인이 우수한 브래지어 상품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차 성징이 대체로 완성되어 유방의 성숙단계에 이르는 20대에서부터 결혼, 임신, 출산, 수유 등을 거쳐 체형이 변화되고 유방의 쇠퇴기로 벌어짐과 하수현상이 심화되는 50대까지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인지적 유방유형과 실제적 유방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방형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이상적인 신체상을 파악하여 적합성 및 기능성이 높은 브래지어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손희순(1989).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Kefgen, M. & Touchie-Specht(197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 co. pp. 168-169.

3) 정재은(1992).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최유미(1993). 중년기 여성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경숙(1982). 브래지어 착용효과에 관한 연구-40대-60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이성민(1994). 성인여성의 상반신 체형연구 - 유방형태 유형화를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은미(1995). 성인여성의 유방형태 분석과 브래지어 치수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 - 20대와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경화(1995). 노년여성의 흉부형태분석 및 브래지어 치수규격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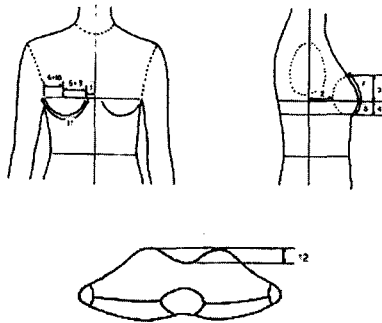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0-59세의 성인여성 중 단순임의추출법 (simple random sampling)에 의해 각 연령대별 55명씩으로 총 220명을 연구대상으로 1998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에 걸쳐 신체계측 및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2. 측정방법

1) 신체계측

측정방법은 KS A 7003(인체측정용어)과 KS A 7004(인체측정방법)⁹⁾와 유방관련 선행연구자료¹⁰⁾¹¹⁾를 참고로 하였다.

계측항목은 몸무게, 높이부위 4항목, 너비부위 4항목, 두께부위 3항목, 둘레부위 3항목, 길이부위 2항목, 유방부위 16항목, 계산항목 2항목, 지수항목 2항목으로 <표 13>에서와 같이 총 37항목이다. 유방부위 세부항목에 대한 계측부위는 <그림 1>에 제시하였고 항목에 대한 용어설명명은 <표 1>과 같다.



<그림 1> 유방부위 세부항목 계측부위

<표 1> 유방부위 세부항목에 대한 용어설명 항목

항목용어	설 명
1.앞중심선-유방내연점길이	앞중심선에서 유방내연점(內緣點)까지의 체표길이
2.옆선-유방외연점길이	옆선에서 유방외연점(外緣點)까지의 체표길이
3.유방상부직경	유방상연점(上緣點)에서 젖꼭지점까지의 수직거리
4.유방하부직경	젖꼭지점에서 유방하연점(下緣點)까지의 수직거리
5.유방내측직경	유방내연점에서 젖꼭지점까지의 수평거리
6.유방외측직경	유방외연점에서 젖꼭지점까지의 수평거리
7.유방상부길이	유방상연점에서 젖꼭지점까지의 체표길이
8.유방하부길이	젖꼭지점에서 유방하연점까지의 체표길이
9.유방내측길이	젖꼭지점에서 유방내연점까지의 체표길이
10.유방외측길이	젖꼭지점에서 유방외연점까지의 체표길이
11.유방밑윤곽선길이	유방내연점에서 유방밑윤곽선을 따라 유방외연점까지 연결한 길이
12.가슴깊이	젖꼭지점을 지나는 수평면에서 앞중심선까지의 수직거리

2)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성인여성의 유방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과 만족도, 연령에 따른 유방형태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¹²⁾¹³⁾¹⁴⁾에서 사용된 문항과 브래지어 관련업체와의 면담 및 제공자료를 참고하여 본 연구지가 총 30문항을 개발하였고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5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표 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조사항목	문항수	조사형식
1. 일반적 배경	7문항	직접기입
2. 유방형태의 변이	4문항	5점척도
3. 유방형태 평가	8문항	직접기입, 5점척도
4. 유방형태 만족도	7문항	5점척도
5. 신체에 대한 의식	4문항	5점척도, 치수기입

3. 주요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방의 형태

(1) 인지 유방형태 : 피험자 자신이 판단하

9) 한국표준 연구소(1988). 인체측정 방법 및 용어의 표준화 연구. 공업진흥청.

10) 이성민(1994). 전계서.

11) 박은미(1995). 전계서.

12) 손희순(1991). 브래지어 및 거들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32집, pp. 45-98.

13) 정재은(1992). 전계서.

14) 강여선(1991). 기능적 브래지어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 있는 유방형태

- (2) 실제 유방형태 : 피험자의 유방부위 신체 계측치에 의해 분석되는 유방의 형태

- (3) 신체의식

신체만족도 : 주요 신체치수와 유방형태에 대하여 느끼는 개인의 만족감의 정도

이상적 신체치수 : 피험자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체치수

- 2) 유방의 유형

- (1) 인지 유방유형: 피험자 자신이 판단하여 인지하고 있는 유방의 유형

① 납작형: 빈약하고 납작한 유방형

② 원추형: 유방의 bust top이 20°~30° 밑으로 향해 있는 형

③ 반구형: 유방의 bust top이 수직이고 이상적으로 돌출된 형

④ 돌출형: 몸 전체에 비해 유방이 풍만하고 돌출되어 있는 형

⑤ 하수형1: 유방이 처진 형

⑥ 하수형2: 유방의 근육에 탄력이 없고 심하게 처진 형

- (2) 실제 유방유형: 피험자의 신체계측치에 의해 군집분석으로 분류된 유방의 유형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AS Window 6.11을 이용하여 연령변화에 따른 인지적·실제적 유방유형의 특징 및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구하고 X²-test, T-test, F-test를 행하며 던컨의 다중범위 테스트(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사후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령에 따른 인지 유방형태 분석

1) 인지 유방유형의 분류

성인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유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유방유형 분류 방법¹⁵⁾¹⁶⁾에 대한 고찰결과에 따라 납작형, 원추형, 반구형, 돌출형, 하수형1, 하수형2의 6개 유방유형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자신의 유방형태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유형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인지 유방유형의 연령분포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인지 유방유형의 연령 분포도

연령	단위: 명(%)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납작형	16(29.1)	13(23.6)	6(10.9)	2(3.6)	37(16.8)
원추형	18(32.7)	14(25.5)	8(14.5)	8(14.5)	48(21.8)
반구형	10(18.2)	4(7.3)	4(7.3)	4(7.3)	22(10.0)
돌출형	3(5.4)	0(0.0)	4(7.3)	4(7.3)	11(5.0)
하수형1	8(14.6)	23(41.8)	25(45.5)	27(49.1)	83(37.7)
하수형2	0(0.0)	1(1.8)	8(14.5)	10(18.2)	19(8.6)
전 체	55(25.0)	55(25.0)	55(25.0)	55(25.0)	220(100.0)

성인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유방유형은 하수형1이 37.7%로 가장 높았고 원추형(21.8%), 납작형(16.8%), 반구형(10.0%), 하수형2(8.7%), 돌출형(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유방의 용적, 면적, 돌출 정도가 가장 작아 빈약하고 밋밋한 납작형으로 인식하는 경우 20대(29.1%), 30대(23.6%), 40대(10.9%), 50대(3.6%)의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고 용적과 하수의 정도가 다소 적고 돌출된 원추형은 20대(32.7%), 30대(25.5%), 40대와 50대(14.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유방이 약간 돌출되고 유방 좌우가 발달한 반구형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응답을 보였으나 20대(18.2%)가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유방이 가장 크고 하수가 적으며 유방이 가

15) 조은숙(1984), 한국여자 파운데이션에 대한 연구-체형과 파운데이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平岡禮子(1990). 若いあなたにこそ マイ?ファウンデーション-正しい下着えらび①. 衣生活研究 17(1).

장 크며 흉부가 돌출된 돌출형은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30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유방하부가 발달하고 유방상부가 움푹 들어가 상부길이가 길면서 유방면적, 용적이 비교적 큰 하수형1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50대(49.1%), 40대(45.5%), 30대(41.8%)의 순으로, 하수의 정도가 심한 하수형2의 경우 50대 18.2%, 40대 14.5%의 비율을 보인 반면 20대와 30대 여성에서는 거의 응답율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납작형, 원추형, 반구형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하수형1,2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져 연령에 따른 인지 유방유형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2) 연령별 유방형태 변이 인식정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유방형태 변이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체형을 갖는 20대에 비해 30대 이상 성인여성의 변화된 유방형태에 대해 연령별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방용적

연령별 유방의 용적 즉, 크기 변화에 대한 인식정도를 <표 4>에서 살펴보면, 많이 감소 0.6%, 약간 감소 27.7%, 변화 없음 25.8%, 많이 증가 23.3%, 약간 증가 22.6%로 많이 감소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각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약간 감소는 30대(42.9%), 40대(27.3%), 50대(14.5%)의 순으로, 변화 없음은 30대(30.6%), 50대(27.3%), 40대(20.0%)로, 약간 증가는 40대(29.1%), 30대(22.5%), 50대(16.4%)의 순으로 나타났고, 많이 증가의 경우 50대(41.8%)와 40대(23.6%)의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20대에 비해서 유방 용적이 많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방의 처짐

<표 4> 연령별 유방용적의 변화 인식정도

변화정도	연령				전체	단위: 명(%) 유의수준
	30대	40대	50대	전체		
많이 감소	1(2.0)	0(0.0)	0(0.0)	1(0.6)	X ² =30.6*** df=8 p<.001	
약간 감소	21(42.9)	15(27.3)	8(14.5)	44(27.7)		
변화 없음	15(30.6)	11(20.0)	15(27.3)	41(25.8)		
약간 증가	11(22.5)	16(29.1)	9(16.4)	36(22.6)		
많이 증가	1(2.0)	13(23.6)	23(41.8)	37(23.3)		
전체	49(30.8)	55(34.6)	55(34.6)	159(100.0)		

* p<.05 ** p<.01 *** p<.001

<표 5> 연령별 유방의 처짐 인식정도

변화정도	연령				전체	단위: 명(%) 유의수준
	30대	40대	50대	전체		
많이 처짐	8(16.3)	15(27.3)	22(40.0)	45(28.3)	X ² =11.4* df=4 p<.05	
약간 처짐	19(38.8)	27(49.1)	20(36.4)	66(41.5)		
변화 없음	22(44.9)	13(23.6)	13(23.6)	48(30.2)		
전체	49(30.8)	55(34.6)	55(34.6)	159(100.0)		

* p<.05 ** p<.01 *** p<.001

연령별 유방의 처짐정도 변화를 <표 5>에서 살펴보면, 약 69.8%의 성인여성이 20대에 비해 유방이 처졌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많이 처짐은 50대(40.0%), 40대(27.3%), 30대(16.3%)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약간 처짐은 40대에서 49.1%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집단은 '변화 없음'에서 응답비율이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비만으로 인해 유방하부의 하수가 심화됨을 알 수 있다.

(3) 유방의 벌어짐

연령별 유방의 벌어짐 정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72.3%의 성인여성이 20대에 비해 찢꼭지 간격이 벌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많이 벌어짐은 40대(38.2%)와 50대(34.5%)에서 높았고 약

<표 6> 연령별 유방의 벌어짐 인식정도

변화정도	연령				전체	단위: 명(%) 유의수준
	30대	40대	50대	전체		
많이 벌어짐	5(10.2)	21(38.2)	19(34.5)	45(28.3)	X ² =13.6** df=4 p<.05	
약간 벌어짐	24(49.0)	21(38.2)	25(45.5)	70(44.0)		
변화 없음	20(40.8)	13(23.6)	11(20.0)	44(27.7)		
전체	49(30.8)	55(34.6)	55(34.6)	159(100.0)		

* p<.05 ** p<.01 *** p<.001

간 벌어진 것은 30대와 50대에서 각각 49.0%, 45.5%로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감소할수록 젖꼭지 간격의 변화가 없다고 하여 30대 집단에 비해 40·50대 집단에서 가슴 부위의 수평방향 비만으로 인한 유방의 벌어진 정도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몸무게

연령별로 몸무게의 변화 인식정도를 <표 7>에서 살펴보면 많이 증가 42.8%, 약간 증가 30.2%, 변화 없음 22.6% 순으로 나타나 73.0%의 성인여성이 20대에 비해 몸무게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7> 연령별 몸무게 변화 인식정도

연령	연령				전체	단위: 명(%) 유의수준
	30대	40대	50대	전체		
변화정도						
많이 감소	0(0.0)	0(0.0)	0(0.0)	0(0.0)		X ² =24.0*** df=6 p<.001
약간 감소	4(8.2)	1(1.8)	2(3.7)	7(4.4)		
변화 없음	16(32.6)	13(23.6)	7(12.7)	36(22.6)		
약간 증가	21(42.9)	15(27.3)	12(21.8)	48(30.2)		
많이 증가	8(16.3)	26(47.3)	34(61.8)	68(42.8)		
전체	49(30.8)	55(34.6)	55(34.6)	159(100.0)		

* p<.05 ** p<.01 *** p<.001

각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약간 감소는 30대(8.2%)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았고, 변화 없음과 약간 증가는 30대(32.6%, 42.9%), 40대(23.6%, 27.3%), 50대(12.7%, 21.8%)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많이 증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비율을 보여 성인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몸무게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만 증가하는데 반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몸무게의 증가율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인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20대에 비해 유방의 용적이 커지고 유방의 하수 및 벌어진 현상이 심화되며 몸무게가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 유방형태 평가

연령별로 연구대상자 자신의 유방 및 신체 주

요부위에 대한 인식평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연령별 유방형태 평가

항목	통계치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F-test F-value	Duncan -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방의 용적	3.0	1.1	2.4	1.1	3.1	1.3	3.3	1.1	3.0	1.2	5.7***	a b a a		
유방의 처짐	2.4	0.7	2.4	0.8	2.6	0.9	2.9	1.1	2.5	0.9	5.2**	b b a a		
유방의 벌어진	2.2	0.7	2.4	0.8	2.6	0.9	2.9	0.9	2.5	0.9	5.9***	c b b a		
유방의 깊이	2.2	0.7	2.2	0.6	2.6	0.8	2.5	0.8	2.2	0.7	3.4*	b b a a		
가슴둘레	2.8	1.2	2.6	1.2	3.4	1.2	3.1	1.2	3.0	1.3	4.3**	b c a ab		
키	3.1	1.1	2.6	1.0	2.5	1.0	2.7	0.9	2.7	1.0	3.3*	a b b b		
몸무게	3.4	0.9	3.5	0.9	3.8	1.0	3.7	0.9	3.6	0.9	2.1			

* p<.05 ** p<.01 *** p<.001

전체적으로 성인여성은 유방의 용적(3.0)과 가슴둘레(3.0)의 크기에 대해서는 보통의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키(2.7), 유방의 처짐(2.5)과 벌어진(2.5), 유방의 깊이(2.2)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작게 평가하고 있고 몸무게(3.6)에 대해서는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몸무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연령적 차이가 인지되었다. 유방의 용적에 대해서는 30대(2.4)가 유방의 용적을 작게 평가하고 있으며 유방의 처짐에 대해서 20대와 30대 집단간과 40대와 50대 집단간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20대·30대 집단이 40대·50대 집단 보다 점수가 낮은 차이를 보여 40대·50대 여성의 유방의 처짐에 대한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의 벌어진에 대해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50대는 나머지 세 집단과 차이가 있으며 30대 집단과 40대 집단 간에도 차이를 나타내 연령이 높을수록 벌어진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의 깊이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 보다 40대와 50대의 평가 점수가 높았고 가슴둘레는 40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자신의 치수를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의 경우 타 연령집단에 비해 20대의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30대, 40대, 50대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성인여성은 자신의 유방에 대해 용적은 보통의 크기이며 처짐, 벌어진, 돌출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키는 작고 몸무게는 많이 나간

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자신의 유방 용적과 가슴둘레를 가장 작게 느끼는 집단이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방의 처짐, 벌어진, 돌출정도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가슴둘레는 40대, 키는 20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별 유방형태 만족도

연령별 유방형태 만족도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표 9> 전 항목에 걸쳐 3점 이하의 평가로 성인여성은 자신의 유방 및 신체 주요부위에 대해 비교적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방의 벌어진(2.5)과 키(2.5)에 더욱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유방의 용적, 유방의 벌어진, 유방의 깊이, 몸무게의 항목에서 연령적인 차이가 인정된 반면 유방의 처짐, 가슴둘레, 키에 대해서는 연령간 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의 용적에 대해서 50대(3.1)는 타 연령집단에 비해 비교적 만족도가 높아 다른 연령집단과 차이를 나타냈다.

유방의 벌어진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 3점 이하의 평가로 모두 약간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2.8)와 40대(2.3)는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유방의 깊이 항목에서는 20대(2.9)와 30대(2.4)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몸무게는 50대(3.1)집단이 나머지 세 연령집단과 차이를 보여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따라서 성인여성은 대체로 자신의 유방형태와 주요 신체치수에 불만족하며 특히 유방의 벌어진

짐과 키에 더욱 불만족한 경향이다. 연령별로는 유방의 용적과 몸무게에 대해서는 5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유방의 벌어진과 깊이에 대해서는 20대의 불만족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연령별 유방형태 평가와 만족도 관계

연령별 유방형태에 대한 크기평가와 유방형태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차이 값에 의한 T-test를 행하여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성인여성은 유방의 용적과 깊이, 가슴둘레, 키, 몸무게의 항목에서 신체크기 평가 점수보다 신체만족도 점수가 낮아 이들 항목에 대해 불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연령별 유방형태 평가와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20대 여성은 유방의 용적, 키, 몸무게에서 차이를 보여 크기평가 보다 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고 30대의 경우 몸무게에서만 평가보다 불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여성의 경우 유방의 용적과 깊이, 몸무게에서 평가점수와 만족도 점수간에 차이를 나타냈는데 유방의 용적과 몸무게는 크기에 비해 불만족한 반면 가슴깊이의 경우 크기평가 보다 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며 50대의 경우는 유방의 높이, 벌어진, 깊이의 3항목에서 만족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방의 처짐과 벌어진, 깊이항목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 유방의 처짐의 경우 20대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과 차이를 보였고 30대는 50대와 차이를 나타냈다. 유방의 벌어진의 경우

<표 9> 연령별 유방형태 만족도

항목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F-test F-value	Duncan -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방의 용적	2.6	1.1	2.3	1.0	2.6	1.0	3.1	1.0	2.7	1.1	5.4**	b b b a
유방의 처짐	2.6	0.8	2.5	0.8	2.5	0.8	2.8	1.0	2.6	0.9	2.0	
유방의 벌어진	2.8	0.9	2.5	0.9	2.3	0.9	2.6	0.8	2.5	0.9	3.0*	a ab b ab
유방의 깊이	2.9	0.8	2.4	0.9	2.7	0.9	2.6	0.8	2.7	0.9	2.8*	a b ab ab
가슴둘레	2.9	1.1	2.4	1.1	2.8	1.1	2.8	1.2	2.7	1.1	2.1	
키	2.6	1.0	2.4	0.9	2.3	0.9	2.6	1.0	2.5	1.0	2.0	
몸무게	2.8	1.1	2.8	0.9	2.7	0.9	3.2	0.7	2.9	0.9	2.7*	b b b a

* p<.05 ** p<.01 *** p<.001

<표 10> 연령별 유방형태 평가와 만족도 관계

항목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F-test F-value	Duncan -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T-값	평균	T-값	평균	T-값	평균	T-값							
유방의 용적	0.33	0.15	254*	0.13	0.13	0.04	0.18	3.04**	0.20	0.19	1.06	0.32	0.08	3.88**	1.3		
유방의 처짐	0.22	0.12	1.90	0.06	0.12	0.47	-0.25	0.14	-1.88	-0.47	0.14	-3.38**	-0.12	0.07	-1.73	5.81**	a b bc c
유방의 벌어진	0.11	0.11	1.03	0.08	0.14	0.52	0.09	0.1	0.82	-0.36	0.14	-3.18**	-0.02	0.06	-0.30	3.71**	a a a b
유방의 깊이	0.00	0.11	0.00	0.21	0.13	1.56	-0.38	0.15	-2.47*	-0.36	0.14	-2.86**	-0.14	0.07	-2.01*	4.6**	ab a b b
가슴둘레	-0.11	0.21	-0.47	0.21	0.22	0.95	0.58	0.25	2.37	0.38	0.23	1.64	0.27	0.12	2.28*	1.6	
키	0.46	0.17	2.88**	0.23	0.16	1.23	0.28	0.18	1.61	0.04	0.17	0.21	0.25	0.98	2.88**	1.0	
몸무게	0.61	0.20	3.05**	0.64	0.20	3.24**	1.02	0.19	5.38**	0.51	0.18	2.84	0.70	0.10	7.22**	1.4	

* p<.05 ** p<.01 *** p<.001

50대가 나머지 세 집단과 차이를 보였으며 유방의 깊이의 경우 30대는 40대와 50대 집단과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성인여성의 유방형태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간에는 차이가 있어 20대의 경우 유방의 용적, 키, 몸무게에서, 30대는 몸무게, 40는 유방의 용적과 깊이, 몸무게, 50대는 유방의 처짐, 벌어짐, 깊이에 대해 형태 인식과 만족도 간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유방의 처짐, 벌어짐, 깊이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간의 차이가 커 저연령층일수록 자신의 유방형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별 신체역식

(1) 비만/빈약의식

연령별로 신체에 대한 의식을 비만/빈약 정도로 살펴본 결과 <표 11>에서와 같이 보통형이 52.3%, 마른형이 20.2%, 살찐형 16.5%, 매우 마른형 7.3%, 매우 살찐형 3.7% 순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자의 반 이상이 자신의 체형을 보통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보통형은 20대(58.5%), 50대(54.5%), 30대(49.1%), 40대(47.3%)의 순으로 응답비율을 나타냈고, 살찐형은 20대(24.5%)와 30대(23.6%)가 40대와 50대 집단에 비해 높았고, 마른형은 40대와 50대 모두 27.3%로 나타났다. 특히 40대는 12.7%가 매우 마른형이라 응답하여 40대와 50대는 자신의 신체를 비교적 마르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20대와 30대 집단은 타 연령층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살찐 체형으로 평가하였다.

(2) 이상적 신체치수

연령별 이상적 신체치수에 대한 조사결과<표 12>, 전체적으로 성인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치수는 키 163.7cm, 가슴둘레 87.0cm, 몸무게 51.7kg으로 나타났다.

연령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키의 경우 20대와 30대 집단은 40대, 50대 집단과 차이를 나타냈

<표 11> 연령별 비만에 대한 인식

변화정도	연령					전체	유의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단위: 명(%)		
매우 살찐형	3(5.7)	1(1.8)	3(5.5)	1(1.8)	8(3.7)	$\chi^2=21.5^*$ $df=12$ $p<.05$	
살찐형	13(24.5)	13(23.6)	4(7.3)	6(10.9)	36(16.5)		
보통형	31(58.5)	27(49.1)	26(47.3)	30(54.5)	114(52.3)		
마른형	5(9.4)	9(16.4)	15(27.3)	15(27.3)	44(20.2)		
매우 마른형	1(1.9)	5(9.1)	7(12.7)	3(5.5)	16(7.3)		
전체	53(24.4)	55(25.2)	55(25.2)	55(25.2)	218(100.0)		

* p<.05 ** p<.01 *** p<.001

고 40대와 50대 집단간에도 유의적 차이가 인정되었다. 가슴둘레의 경우 전 집단 모두가 서로 차이를 보였으며 몸무게는 20대, 30대와 40대, 50대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키의 이상치수는 저연령층이 크고 가슴둘레와 몸무게의 경우는 고연령층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상적인 신체치수에 대한 의식은 저연령층이 더욱 마르고 큰 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¹⁷⁾¹⁸⁾의 연구결과에서 시사하는 바와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체로 성인여성은 자신의 체형을 보통의 비만정도를 갖는 보통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을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이상적인 신체치수는 키 163.7cm, 가슴둘레 87.0cm, 몸무게 51.7kg이라고 생각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더 크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실제 유방형태 분석

성인여성(20-59세)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신체계측치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직접계측에 의한 33항목, 계산항목 2항목, 지수항목 2항목에 대해 각 연령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F-test와 Duncan-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고 총 37항목 중 29항목에서 유의차가

<표 12> 연령별 이상적 신체치수

항목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F-test F-value	Duncan -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cm)	166.9	3.2	165.9	2.8	162.0	5.2	160.1	4.2	163.3	4.8	35.6***	a a b c
가슴둘레(cm)	84.8	2.5	86.0	2.1	87.5	3.3	89.6	3.3	87.0	3.4	28.1***	d c b a
몸무게(kg)	50.0	2.9	50.0	2.4	53.0	3.5	53.9	3.8	51.7	3.7	21.5***	b b a a

* p<.05 ** p<.01 *** p<.001

인정되었다.

① 유방의 위치

가슴의 위치와 관련 있는 수직항목으로 키, 유방상연점높이, 유방높이, 유방하연점높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20대와 30대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40대와 50대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40대·50대 연령집단에 비해 20대·30대 연령집단의 계측치가 크게 나타나 높이부위는 연령이 높은 집단이 더 작은 결과를 보였다.

② 가슴부위의 편평률

가슴부위의 비만도와 편평률과 관련 있는 너비·두께·둘레항목에서 거의 모든 항목이 연령이 높은 집단의 치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너비·두께항목을 보면, 가슴너비(3.0cm)와 가슴두께(3.1cm)의 변화가 가장 크고 밀가슴부위의 경우는 너비(2.1cm)보다 두께(3.1cm)의 변화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 20대·30대 집단에 비해 40대·50대 집단의 가슴부위의 수평방향으로 비만화 경향이 심화됨을 인지 할 수 있다. 둘레항목을 보면, 윗가슴둘레, 가슴둘레, 밀가슴둘레는 연령에 따라 전체적으로 8-10cm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고 40대와 50대 집단의 증가량이 큼을 알 수 있으며 가슴부위의 너비·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둘레 또한 커져 가슴부위의 비만화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유방의 형태(처짐·벌어짐·면적·용적·깊이)

유방의 처짐을 나타내는 목옆점-젖꼭지점길이, 어깨중심점-젖꼭지점길이 항목에서 20대·30대 연령집단과 40대·50대 연령집단간 유의차를 보였는데, 고연령층의 계측치가 크게 나타나 젖꼭지점의 위치가 낮은 결과를 보여 유방 처짐정도가 심화됨을 인지 할 수 있다.

유저의 면적 및 벌어짐을 나타내는 앞중심선-유방내연점길이, 옆선-유방외연점길이, 젖꼭지간격, 유방외측직경, 유방상부직경, 유방하부직경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유방하부직경을

〈표 13〉 연령별 실제 유방형태 분석 결과

항 목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F-test F-value	Duncan -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키	162.4	4.3	158.7	4.2	155.7	4.7	155.7	4.3	158.1	5.2	28.6***	a b c c
유방상연점높이	121.4	4.5	118.5	3.4	116.1	3.8	115.7	4.0	117.9	4.5	24.3***	a b c c
유방높이	113.9	4.7	111.0	3.7	107.4	4.4	106.8	4.1	109.7	5.1	33.8***	a b c c
유방하연점높이	109.5	4.3	106.7	3.4	103.8	3.9	103.4	3.8	105.9	4.6	30.1***	a b c c
윗가슴너비	27.4	2.4	27.7	1.8	28.4	1.7	29.5	2.3	28.2	2.2	10.7***	c b c b a
가슴너비	26.2	1.4	26.8	1.5	28.3	1.8	29.2	2.3	27.6	2.1	32.1***	c c b a
밀가슴너비	25.1	1.2	25.5	1.4	26.7	1.8	27.2	1.8	26.1	1.8	21.3***	b b a a
윗가슴두께	18.1	1.7	18.3	1.3	19.7	1.7	20.3	1.7	19.1	1.8	25.6***	c c b a
가슴두께	21.3	2.0	21.5	1.8	23.7	1.9	24.4	2.2	22.7	2.4	35.9***	b b a a
밀가슴두께	17.7	2.0	17.9	1.9	20.2	2.2	20.8	2.0	19.1	2.4	33.4***	b b a a
윗가슴둘레	82.7	4.4	84.1	4.3	88.0	5.1	90.6	5.4	86.4	5.7	31.6***	c c b a
가슴둘레	84.7	5.5	85.5	5.5	92.4	6.3	94.3	6.2	89.2	7.2	37.0***	b b a a
밀가슴둘레	75.0	4.4	76.2	5.4	81.3	5.4	82.8	5.1	78.8	6.0	30.7***	b b a a
목옆점-젖꼭지점길이	25.9	2.0	26.4	2.0	28.9	2.1	29.5	2.4	27.6	2.6	38.5***	b b a a
어깨중심점-젖꼭지점길이	24.0	1.9	24.4	2.0	26.8	2.1	27.3	2.3	25.6	2.5	37.0***	b b a a
앞중심선-유방내연점길이	1.2	0.7	1.5	0.8	1.8	1.0	2.0	0.9	1.6	0.9	10.7***	b b a a
옆선-유방외연점길이	13.5	1.7	13.7	1.3	15.3	1.6	15.2	2.2	14.4	1.9	16.9***	b b a a
젖꼭지간격	18.7	1.8	18.8	1.5	19.7	1.9	20.1	1.4	19.3	1.7	7.6***	b b a a
유방내측직경	7.1	1.3	6.9	1.1	7.4	1.2	7.2	1.1	7.2	1.2	2.0	
유방외측직경	4.6	1.2	4.6	0.8	5.0	0.9	5.0	1.0	4.8	1.0	2.8*	b b a a
유방상부직경	7.8	1.6	7.5	1.5	9.1	2.0	8.9	2.1	8.3	1.9	10.3**	b b a a
유방하부직경	3.4	1.0	3.2	1.0	2.5	1.0	2.4	1.0	2.9	1.1	13.2***	a a b b
유방내측깊이	8.9	1.3	8.8	1.1	9.0	1.4	9.0	1.7	8.9	1.4	0.2	
유방외측깊이	8.9	1.7	8.7	1.7	9.8	2.1	9.7	1.8	9.3	1.9	5.1**	b b a a
유방상부깊이	8.8	1.8	8.5	1.6	10.2	2.1	10.0	2.0	9.4	2.0	11.8***	b b a a
유방하부깊이	6.2	1.3	5.7	1.2	5.8	1.2	5.8	1.4	5.9	1.3	1.8	
유방밀윤곽선길이	18.2	2.2	17.2	2.2	17.5	2.9	17.9	2.5	17.7	2.5	1.7	
가슴깊이	3.1	1.3	3.0	0.9	3.2	1.0	3.2	1.0	3.1	1.0	0.6	
유방상부경사각도	63.2	7.2	62.8	5.9	60.3	6.2	60.8	7.3	61.8	6.8	2.5	
유방하부경사각도	52.9	12.0	51.7	9.4	45.4	11.4	47.5	12.1	49.4	11.6	5.4**	a a b b
유방내측경사각도	46.1	19.8	44.3	12.8	44.6	14.1	47.3	13.1	45.5	15.2	0.4	
유방외측경사각도	53.8	16.1	52.0	11.2	52.2	12.5	51.2	11.9	52.3	13.0	0.4	
음무게	52.8	5.5	52.9	5.3	56.9	6.1	59.1	7.0	55.6	6.6	15.1***	b b a a
윗가슴둘레-가슴둘레	-2.0	2.8	-1.4	2.8	-4.4	3.3	-3.7	2.4	-2.9	3.1	13.2***	a a b b
가슴둘레-밀가슴둘레	9.7	3.6	9.3	5.0	11.2	2.9	11.5	2.9	10.4	3.9	10.4***	b b a a
Rohrer지수	1.2	0.1	1.3	0.1	1.5	0.2	1.6	0.2	1.4	0.2	57.5***	d c b a
Vervaeck지수	84.2	5.8	87.1	5.9	95.2	7.1	98.1	7.6	91.1	8.7	53.0***	d c b a

* p<.05 ** p<.01 *** p<.001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20대·30대 연령집단과 40대·50대 연령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는 고연령층의 계측치가 크게 나타나 유저면적과 벌어짐이 큼을 나타낸다.

유방의 용적을 나타내는 유방상하부와 내외측의 길이 및 경사각도 항목, 유방밀윤곽선길이, 가슴둘레-밀가슴둘레를 보면, 유방외측길이, 유방상부깊이, 유방하부경사각도, 가슴둘레-밀가슴둘레 항목만 연령적 차이가 인정되었다. 유방외측길이, 유방상부깊이, 가슴둘레-밀가슴둘레는 40대·50대집단이 크게 나타났고 유방하부

17) 정재은(1992). 전계서.
18) 최유미(1993). 전계서.

경사각도는 20대·30대 집단이 커 젊은층보다 40대·50대 집단의 유방용적이 큰 결과를 보였다.

가슴의 깊이(유방돌출)와 관련있는 가슴깊이, 윗가슴둘레-가슴둘레 항목을 보면, 가슴깊이는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윗가슴둘레-가슴둘레는 40대, 50대, 20대, 30대 순으로 음의 차이를 나타내 유방의 돌출정도는 40대와 50대 집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성인 여성은 연령증가에 따른 비만화 경향으로 Rohrer와 Vervaeck 지수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유방형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화 경향 및 출산수유로 인한 변형으로 인해 유방용적과 돌출이 커지면서 처짐과 벌어진짐이 동시에 발생하는 방향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성인여성의 연령에 따른 인지적·실제적 유방형태 분석결과를 비교·고찰해보면 실제 계측치 분석결과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키는 줄고 몸무게는 늘어나 비만화 되며 출산 및 수유 등으로 유방의 형태가 변하게 되어 용적이 커지고 돌출하며 처짐과 벌어진짐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방형태변이에 대한 인지내용과 차이가 없었으나 유방형태 인식정도 분석결과 30대 여성의 경우 자신의 유방용적과 가슴둘레를 실제보다 가장 작게 인식하고 있으며 40대의 경우는 가슴둘레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어 실제내용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30대 이상의 성인여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른 유방형태 변이는 비교적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유방형태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실제내용과 인지내용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59세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보정·정용의 기능이 우수한 브래지어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령에 따른 인지적·실제적 유방형태를

분석·고찰하고 각각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30대 이상의 성인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20대 여성에 비해 유방의 용적이 커지고 유방의 하수 및 벌어진짐 현상이 심화되며 몸무게가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인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유방유형은 하수형1이 37.7%로 가장 높았고 원추형(21.8%), 납작형(16.8%), 반구형(10.0), 하수형2(8.6%), 돌출형(5.0%)의 순으로 나타나 성인 여성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유방을 납작형, 원추형, 반구형이라고 인식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돌출형, 하수형1과 2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전체적으로 성인여성은 자신의 유방에 대해 용적은 보통의 크기로 처짐, 벌어진짐, 돌출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키는 작고 몸무게는 많이 나간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이 자신의 유방 용적과 가슴둘레를 가장 작게 느끼는 집단이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방의 처짐, 벌어진짐, 돌출정도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가슴둘레는 40대, 키는 20대 여성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인여성은 대체로 자신의 유방형태와 주요 신체치수에 불만족하며 특히 유방의 벌어진짐과 키에 더욱 불만족한 경향이다. 연령별로는 유방의 용적과 몸무게에 대해서는 50대 여성이, 유방의 벌어진짐과 깊이에 대해서는 20대 여성의 불만족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성인여성의 유방형태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간에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 20대 여성의 경우 유방의 용적, 키, 몸무게에서, 30대 여성은 몸무게, 40대 여성은 유방의 용적과 깊이, 몸무게, 50대 여성은 유방의 처짐, 벌어진짐, 깊이에 대해 형태 인식과 만족도 간에 차

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유방의 처짐, 벌어진, 깊이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간의 차이가 커 저연령층일수록 자신의 유방형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대체로 성인여성은 자신의 체형을 보통의 비만정도를 갖는 보통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을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이상적인 신체치수는 키 163.7cm, 가슴둘레 87.0cm, 몸무게 51.7kg이라고 생각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더 크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연령에 따른 실제적 유방형태를 분석한 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 늑위부위는 감소하고 가슴부위의 너비·두께·둘레는 커지며 목옆점-젖꼭지점길이, 어깨중심점-젖꼭지점길이는 길어져 젖꼭지점의 위치는 낮아지고 가슴부위의 비만화가 현저하게 나타나며 20대와 30대 집단에 비해 40대와 50대 집단의 가슴부위는 수평방향으로 비만화 및 처짐 경향이 심화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저의 면적 및 벌어진을 나타내는 항목 및 유방의 용적을 나타내는 항목의 치수가 커져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저의 면적 및 벌어진, 용적이 커지며 유방의 돌출정도는 40대와 50대 집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몸무게의 증가와 함께 비만화 경향이 심화되며 유방형태는 출산·수유 등으로 인해 용적과 돌출이 커지면서 처짐과 벌어진이 동시에 발생하는 방향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인여성의 연령에 따른 인지적·실제적 유방형태 분석결과, 실제 계측치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키는 줄고 몸무게는 늘어나 비만화되며 출산 및 수유 등으로 유방의 형태가 변하게 되어 용적이 커지고 돌출하며 처짐과 벌어진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방형태변이에 대한 인지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유

방형태 인식정도 분석결과 30대 여성의 경우 자신의 유방용적과 가슴둘레를 가장 작게 인식하고 있으며 40대 여성의 경우는 가슴둘레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어 실제내용과 차이를 보였다. 즉, 성인여성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유방형태 변이는 비교적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의 유방형태에 대한 인식 평가정도는 연령에 따라 실제내용과 인지내용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여성의 유방형태는 연령에 따라 인지적·실제적으로 특성을 달리하여 실제적으로는 20대는 30대 여성과, 40대는 50대 여성과 유사한 유방특성을 지니는 반면 인지적으로는 각 연령별로 유방에 대한 인식을 각기 달리하고 있어 이러한 인지적·실제적 연령의 특성이 브래지어 상품개발시 연령층의 세분화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인여성의 연령에 따른 유방형태의 인식도를 파악하여 실제 유방형태와의 차이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유방형태의 유형화 작업이 요구되며 연령별, 유방 유형별 브래지어 패턴 개발 및 착용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국한되어 있고 220명의 인원에 불과하므로 연구결과와 확대 적용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충련(1994). SAS라는 통계상자-통계분석 및 시장조사기법을 중심으로-. 테이타리서치.
- 백상호(1984). 기초인체해부학 대한 간호협회출판부.
- 조인호(1993). SAS강좌와 통계컨설팅. 제일경제연구소.
- 최석철·조경래·장정대(1989). 피복위생학 형설출판사.
- 한국과학기술연구소(1980). 산업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조사 연구보고서.
- 한국표준과학연구소(1992).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 표준체위 조사보고서. 공업진흥청
- 한국표준연구소(1980). 국민 표준체위 조사보고서. 공업진흥청.

- 한국표준연구소(1992).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 국민기술품질원
- 한국표준연구소(1988). 인체 측정방법 및 용어의 표준화연구. 공업진흥청.
- 강금숙. 授乳婦用 브래지어 설계를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여선(1991). 기능적 브래지어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평면사진 계측에 의한 여중생의 체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14(3), PP. 208-215.
- 김영숙·박은미·손희순,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조사연구, 복식문화연구 4(2), pp.277-302, 1996.
- 김영숙(1999). 성인여성의 인지적·실제적 유방유형과 브래지어 착용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은(1991). 시판 화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불만족 요인 연구 -브래지어와 거들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만수(1993). 건강한 유방 아름다운 당신. 동아일보사.
- 박명순(1975). 여대생 Brassiere Size의 분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1995). 성인여성의 유방형태 분석과 브래지어 치수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 - 20대와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손희순(1996). 20대와 40대 여성의 유방형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2), pp. 85-97.
- 손희순(1992). 여자 중·고등학생의 화운데이션 구매의사결정 관련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pp. 203-236.
- 손희순(1989).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혜경(1990). Brassiere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1994). 노년여성 흉부체형 유형화에 관한 연구 (I). 대한인간공학회지 13(2), pp. 25-31.
- 이경화(1995). 노년여성의 흉부형태 분석 및 브래지어 치수규격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민(1994). 성인여성의 상반신 체형연구 -유방형태 유형화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화(1995). 임신부용 브래지어 설계를 위한 흉부체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1992).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숙(1984). 한국여자 파운데이션에 대한 연구-체형과 파운데이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미(1993). 중년기 여성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日本人間工學會衣服部會編(1991). 新編 被服と人體 東京: 日本出版 サ・ビス.
- 近藤落子. 下着の作り方. 婦人用下着篇. 文化服裝學院 出版局, 昭和 37年.
- 間壁治子·赤塚博江. ファウンデーションの着用に関する現状調査について(1985). 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近藤 26(11), pp. 464-472.
- 弓削治(1982). 被服衛生學. 朝創書店.
- 大野精枝(1974). ファウンデーションの着衣條件が身體生理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 日本家政學會誌 25(6). pp. 486-490.
- 百々啓爾(1983). 下着の種類と要求される品質・性質, 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24(9), pp. 389-397.
- 田中道一(1972). 外 2人. ブラジャーの機能性に関する研究. 家政學雜誌 23(3).
- 田中道一(1984). 被服の運動機能性と快適性. 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25(9).
- 竹内友昭(1984). 乳房の運動とブラジャー. 人間工學 20(2).
- 中橋美智(1968)子 外 3人, 婦人下着の着方に關する研究, 日本家政學會誌 19(1), pp. 31-38.
- 中野廣(1981). ファウンデーション?ランジェリー類. 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22(12), pp. 28-33.
- 清水裕子(1987). 戸塚歌子·大塚伊里子?松島貴子. 下着の着用状態に關する研究, 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28(1), pp. 23-30.
- 清水義雄 外(1993). ブラジャーの動的被服壓測定. 繊維學會誌 49(1), pp. 99-104.

- 平岡禮子(1990). 若いあなたにこそ マイ?ファウンデーション-正しい下着えらび①. 衣生活研究 17(1).
- 下田満智子(1982). 最近のファウンデーション?ランジェリ. 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23(10), pp. 20-26.
- Kefgen, M. & Touchie-Specht(197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Personal A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 co. pp. 168-169.
- Voherv, The Breast, Saint Louis: The C.V.Mosby Co.